

■ 진흥원 '한국불교총람' 개정판 발간

한국불교 현주소 '한눈에'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개정판이 10일 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96년 1월부터 2년6개월의 편찬작업을 거쳐 새롭게 개정보완한 <한국불교총람>은 '한국불교총람' '종단' '법인' '불교단체/기관' '불교관련업체' '사찰' '인명' '불교문화재' '불교도서및 논문' '한국불교사연표' 등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람은 93년 초판과 비교할 때 한국불교의 발전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2년6개월 보완 작업
직장·직능단체 세분화
9월초 CD로도 출시

그동안 증가한 불교법인 및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직장·직능단체는 불교의 질적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총람에는 56개 종단의 총무원 중 조 종지 주요사업 산하기관 교세 기

구표등의 현황과 4천여곳의 신행 포교 청년 학생 교육 연구 학술 문화 사회 복지등의 불교단체와 기관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따라 소재지 활동상 주요연혁을 정리하고 있다. 불교단체의 경우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직장·직능단체들이 창립돼 93년 대비 1천여곳이 증가했다.

개정판에는 1천여곳의 불교관련업체와 1만3천여 사찰 2천5백여명에 이르는 승가 재가 인명자료가 수록돼 있는데 사찰의 경우 초판에 비해 1천5백곳이 증가했으며 인명도 7백

명이 늘었다. 불교법인은 초판당시 97개이던 것이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98년 현재 재단법인 48개 사단법인 57개 학교법인 16개 사회복지법인 44개로 총 1백50곳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1993년 이후 불교관련 국가지정 문화재와 불교도서논문 한국불교사연표도 실려 있으며, 추가 지정 불교문화재 2백16건에 대한 지정내용 소재지 지정일 등이 정리돼 있다. 불교도서및 논문은 3천2백여건이 도서명 편저자 발행처 사양 발행연대순으로 나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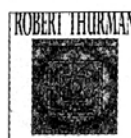
서돈각 이사장은 "현재 작업중인 CD도 9월1일까지 출시하겠다"며 "이번에 발간된 총람이 필요한 곳에 이용돼 불교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4X6배판 1천144페이지 양장제본이며, 구입문의는 도서출판 책섬(02-719-2607)으로 하면 된다. 판매가는 12만원.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해외신간

내면의 혁명



INNER REVOLUTION
BY ROBERT THURMAN
WITH ILLUSTRATIONS BY RICHARD HARRIS

<내면의 혁명 (Inner Revolution)>은 로버트 서먼교수(美 콜롬비아대)가 최근 미국 역사학계에 제기한 불교적 세계관 논쟁을 정리한 책. 서먼교수는 이 책에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물결은 합리적 과학기술 중심부에 인간의 존엄성을 세운 것이며, 사회구조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불교적 구성체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Riverhead Books刊 (p.p 322, ISBN 1573220906)

오늘날 다시 살아난...

도원선사(道元禪師·생물연대 미상)의 가르침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 <오늘날 다시 살아난 도원선사의 가르침>이 나왔다.

일본의 선(禪)의 대가 3인, 미야자마 에게호오(조동종 분산 영령사 주지) 나카무라 모토(동방대학원장) 다테마즈 가즈히라(동경대 명예교수)씨가 도원선사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묶은 것으로 △도원선사의 구도심 △도원선사의 자연관 등 5편이 수록돼 있다. 日 불교기획刊

선과 공술



ZEN IN THE ART OF ARCHERY
BY EUGEN HERRIGEL

선(禪)을 다룬 책은 대부분 지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선은 궁극적으로 수행을 요구한다. 독일 철학자 유진 헤리겔이 저술한 <선과 공술(Zen in the Art of Archery)>은 공술을 배우는 과정을 선승의 수행 방법으로 풀이해 독자에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Vin-tage Books刊.(p.p 81, ISBN 0679722971)

178호에 소개된 <벼랑위의 깃발> 저자는 전 용산 경찰에서 경무관으로 비로 잡습니다.

"홀인원 하려거든 먼저 마음 비우세요"

방민준씨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 펴내

방민준씨(51·한국일보 광고국 부국장)가 펴낸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서해문집刊)은 박세리로 인해 '부유층 스포츠'에서 일약 국가위상을 높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정신수양이 필요한지를 선의 화두나 경구(經句)를 통해 설명한 책이다. 골프를 하는 동안 벌어지는 갖가지 상황상황에 적용되는 수많은 교훈들과 일화들이 선승들의 화두나 경구, 그들의 행적과 신묘하게도 맥이 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프를 잘하는 방법론 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수행하고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수행지침서'에 가깝다. 자신의 학식에 대해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어느 대학교수가 선에 대해 물기 위해 난인선사(일본 메이지시대)를 찾았다. 선사는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찾잔에 차가 철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랐다. "차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자 선사는 말했다. "그대는 아상이 이처럼 넘쳐 흐르니 먼저 아상을 비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어찌 그대에게 선의 차를 따를 수 있으리오." 골프도 그렇다. 골프에 관한 온갖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골프의 지혜를 담을 수 없다. 윌터 심프슨이란 골퍼는 "머리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골프 솜씨는 향상된다"고 말했다. 정말 필요한 지혜란 바로 공이며 경상심이다. 골퍼들의 평생꿈인 '홀인원'은 곧 공의 세계다. 이 지혜는 골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스포츠와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책은 이런 속내를 드러내 보이며 골프를 통해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선이 있음을



○골프는 곧 선수행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우도. 눈치채게 한다. 독특한 제목만큼이나 이야기들도 재미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2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필	여시아문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6	불교입문	조계종편찬부	조계종출판사
7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9	밀교강좌	혜정	출판시대
10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훈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신동춘교수의 '속 벽암록'

도서 2권으로 번역출간

96년 발간된 신동춘 교수(한양대 명예교수)의 <속(續) 벽암록>이 일본에서 <속 벽암록>과 <신(新) 벽암록>으로 각각 번역,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홋카이도 사담(斜塔)출판사에서 <속 벽암록>이 고오노 에이지(鴻峯映二)씨의 번역으로 나온데 이어, 최근 도쿄 서사정수사(書肆再樹社)에서 <신 벽암록>을 펴낸 것. 고오노씨는 신교수가 <속 벽암록>에서 보여준 선(禪)과 현대사의 접목을 주목하고 있다. <신 벽암록>은 제일동포 강창중씨(시인)가 신교수에 의해 구현된 사사무애한 선의 세계를 좀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일본어적으로 쉽게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경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상식' '...근본사상' '...불자생활' 동산반야회서 펴낸 책 3권

신행단체인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자들을 위한 기초교리와 부처님의 사상을 쉽게 설명한 세 권의 책을 펴냈다.

<간추린 불교상식>은 조계종 포교사 광정현씨가 엮은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근본교리, 제불보살, 불교사, 불교문화, 포교이론, 사찰예절 등 불교상식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불타의 근본사상>은 1978년 나온 윌포라 라후라의 저서 <불타의 가르침(What the Buddha Taught)>을 동산반야회가 편역한 책. 사성제, 팔정도, 연기, 무아사상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교리 그리고 불자생활>은 교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신행생활의 방향을 제시한 지침서. 불교문화 등을 포함한 불자의 올바른 생활자세를 제시했다. 세 권 모두 동산반야회 부설 출판사인 동산법문에서 간행했으며, 통신판매만 한다. (02)722-0408 한영우 기자

인도 성지순례의 감동 서정적 서술

방랑시작 재연스님의 지음

"르스님 분가루는 왜 바르세요" "뭇난 중생들이란 그저 상을 취하는 법이어서..." "뭇난 중생들 속에 분가루로 검버섯을 감추시는 스님도 들어갑니까" 뉘는 사미는 푸엿 치켜든 르스님의 흰 눈썹에서 고양이의 송곳니를 본 후 묵묵히 산문을 나섰다. 방랑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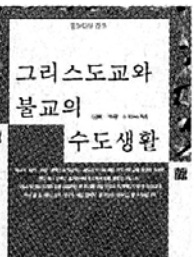
위선과 허위로 가득찬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방랑 시작>은 현재 인도 푸나대학에서 공부중인 재연스님의 산문집. 삼십년 수도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서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도의 여러 성지를 직접 순례하며 느낀 것을 원시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 것이 특이하다. <문학동네, 6천5백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수도생활 비교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재문스님의 지음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수도생활>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 비교를 통해 두 종교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불교는 수행을 그 자체가 본질이자 궁극인 것으로 보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차이점에 대한 논의도 개진되고 있다. 재문스님(중앙승가대 강사) 김승혜(씨튼 까리따스수녀회) 한순희(가톨릭대 종교학과 교수) 윤영혜(경주 동국대 강사) 진 토마스(성메네티회 왜관 수도원) 등 5명의 '승가계율의 역사와 정신' '그리스도교 수도회 규칙의 역사와 정신' 등 10편의 글이 실려 있다. 글쓴이들은 모두 이론적이 아닌 실천적 측면에서 두 종교가 서로 만난다면 흥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오로딸, 6천5백원>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류시화 엮음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에게 듣는다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다 떠난 빈 집을 고쳐 홀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콩이나 같은 먹을 걸 놓아 준다. 박새가 더러 오는데, 박새한테는 쫄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그 놈들도 먹는다. 밤에 찾아 개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개울가에 말자국이 있다. 그래서 헤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 둔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뉘 갖는 큰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 본문 중에서

무소유한 삶, 자신을 늘 되짚어 보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고구마 하나까지도 오두막 근처에 내려오는 산짐승들과 나눠 먹는 삶, 그리고 저처럼 문득 등불을 마주하고 앉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법정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 위문이의 글에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이후 3년만의 신간

교보문고 주최 법정 스님 특별 강연 1998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옥동로 18-9 백영빌딩 401호 동쪽나라
전화 263-1941, 팩스 263-1946